

<p>① 정부 백신 의무화 (의무화 직종)</p> <p>* 특정 직업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가 아닌 우선 예방접종 방안 추진</p> <p>* (결정 : 2020.12.31. / 접종 : '21.4.26 ~ )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확대 결정 : 21.05.26 / 예약 : 21.8 ~ / 접종 : 미조사)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접종(전체 자율접종 대상 300만명)</p>
<p>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필수노동자 직종’ 확대한다 (2021.05.27.)</p> <p><a h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2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24</a></p> <p>환경미화 · 택배 · 버스처럼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가 추진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2~3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의료인력과 노인 · 장애인 돌봄종사자, 보육교사 등 필수업무종사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필수업무종사자를 우선 예방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은 정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필수업무 분야별 연령 · 성별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구체적 대상은 정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필수업무 분야별 연령 · 성별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p>
<p>방역당국 “특정 직업군 ‘백신 접종 의무화’ 검토 안 해” (2021.09.10.)</p> <p><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7246">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7246</a></p> <p>방역당국이 정부가 특정 직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아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며 "예방접종에 주력할 상황"이라고 답했다.</p> <p>(공동-참고)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1.08.19.)</p> <p>(정책 브리핑) <a h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62">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62</a></p> <p>(‘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접종(전체 자율접종 대상 300만명)</p> <p>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p>
<p>만 18~49세 · 필수업무종사자, 이번주 백신접종 사전 예약 시작 (2021.08.01.)</p> <p>(데일리안) <a href="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7732/">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7732/</a></p> <p>대상군은 ▲필수업무종사자(대중교통 근무자, 택배근로자, 환경미화원, 콜센터 종사자 등) ▲접종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아동 · 청소년 밀접 접촉자(학원 · 청소년 관련 종사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일반 ·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종사자 등)</p> <p>정부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2021.05.26.)</p> <p><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6000056">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6000056</a></p> <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6_000145324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6_0001453244</a></p>
<p>정부가 방문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p> <p>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 대책(‘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p>
<p>방역당국, 의료기관 의료인 · 사회필수인력 접종 시행 (2021.04.26.)</p> <p><a href="http://www.mone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30">http://www.mone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30</a></p>
<p>방역당국은 26일부터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p>
<p>권덕철 장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 시작 11월 완료 목표” (2021.12.31.)</p> <p><a href="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12">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12</a></p>
<p>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p> <p>“2021년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p>

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의약사 등 사회필수인력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유력' <a href="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1302">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1302</a>
—